

1면 ‘학사일정’에서 이어짐

또한 “후기 학위수여식과 함께 진행할 경우 전기 학위수여식 수상 대상자를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휴관 중인 양캠퍼 도서관, 이용자 불편 해소 위해 도서 대출 서비스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건물 출입 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캠퍼 중앙도서관과 법학도서관, 의학계열도서관, 한의학도서관은 지난달 28일부터 휴관 중에 있다. 도서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도서 반납은 중앙도서관 주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무인 반납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제캠퍼 중앙도서관과 공학도서관, 휴마니타스도서관도 휴관에 들어갔다.

서울캠퍼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김민정 직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내달 12일까지 휴관할 것”이라며 “오는 13일에 다시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추후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캠퍼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안수찬 차장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강의실 수업 시작일이 연기된 만큼 도서관도 다음달 13일에 맞춰서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강의실 수업 시작일이 또 다시 연기된다면 도서관 개관일도 같이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은 휴관에 따른 이용자의 자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개강에 따른 연구·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서 대출 예약서비스를 실시한다. 도서를 대출하려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하고, 다음날 서울캠퍼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제캠퍼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예약 신청을 하면 당일 오후 4시에도 배부 받을 수 있다.

강의실 수업 시작일이 연기되면서

기숙사 입사일도 미뤄졌다. 서울캠퍼 행복기숙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2주 추가 연장되면서 입사 수속을 내달 10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삼의원과 세화원 기숙사 또한 정기 입사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국제캠퍼 우정원과 제2기숙사 역시 정기 입사 기간을 오는 9일에서 12일까지로 변경했다. 기존 날짜에서 2주 연기된 기간이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

한균태 총장은 학사 일정 연기와 비대면 수업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또한 “수업의 질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된 학생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환경이지만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돼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비대면 강의 시행에 대해서는 “질 높고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다음주 비대면 수업 운영 신규 플랫폼(LMS)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지만 등교 연기와 비대면 강의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3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비대면 수업 운영 신규 플랫폼(LMS)은 동시에 학생 2,000명이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e-campus와 연동해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ZOOM)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① 지난 20일, 제52대 서울캠퍼 중앙운영위원회가 ‘등록금채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본관을 향의 방문했다. ② 23일을 시작으로 학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릴레이 피케팅이 매일 점심마다 이어졌다. ③ 26일 열린 ‘등록금채정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캠퍼스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이 등록금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1면 ‘등책위’에서 이어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운위는 지난 17일 “대학본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재논의에 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대학본부에 20일 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된 교육 환경에 따라 ‘등책위 개최’,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등록금 재논의’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환경이 변동돼 하루 빨리 등록금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서 대학본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부총장 선임 이후로 등책위 개최를 미루는 상황”이라며 “지난 20일 ‘등책위 개최’ 촉구를 위해 중운위 위원들과 함께 본관 총장실을 방문한 이후 23일부터 매일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했지만 역시나 대학본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지원센터 송기휴 행정과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대책 회의들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사항에 있어 발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또 “등책위가 아닌 다른 소통 회의체를 구성해 언제든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총학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외국인 지원팀장, 학생지원센터장, 예산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소통 회의체를 만들어 등록금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는 본부의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등책위만큼의 정체성과 무게감이 없고, 합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감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식 회의체인 등책위를 통해서만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캠퍼 총학 측은 “등책위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총장 공약이었던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학생들의 의지는 충분하다”며 “대학본부로부터 하루빨리 책임 있는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학생 모금 활동, “모든 학우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

총 3회간 2,500명 넘게 모여 8곳에 나눠 4,500만 원 기부 “코로나19 사태 얼른 회복되길”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지난달 26일 우리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힘쓰는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모금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모금 기간 동안 2,500명이 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진, 졸업생 동문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서 모인 4,700여만 원은 대학병원과 구호단체 등에 전달됐다.

1차 모금에서 모인 1백만 원은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으로 전달됐고, 2차 모금액은 대한공중보건지사의협

회와 대학적십자사에 각각 1천만 원씩 전달됐다. 지난 4일 마무리된 3차 모금 이후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기관에 각각 1천만 원을, 영남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파티마병원에는 570여만 원을 나눠 기부했다. 대부분의 기부 장소는 학생 투표로 결정됐고 ‘경희대학교 학생 일동’ 이름으로 기부가 이뤄졌다.

모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오픈채팅방에 공지된 계좌로 최소 금액 5천 원 이상을 후원했고, 주최자들은 채팅방에 익명 처리된 기부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하루 2번씩 정기적으로 공지했다. 모금 활동 홍보는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모금 활동의 제안자는 박민희(국어국문학 2018), 송유빈(언론정보학 2018), 문수현(경영학 2018) 씨이며, 조근영(중국어학 2018) 씨가 국제캠퍼스 홍보를 도왔다. 주최자들은 “전례 없는 모금 활동을 믿고 지지해 준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원활한 모금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개인 SNS나 블로그 등으로 홍보 해주신 분들이 많아 모금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씨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대학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활동을 시작했다”며 모금 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첫 목표액은 5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실 줄 몰랐

고 규모가 커져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며 “주변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제인자들은 “각 기부처로부터 대표로 감사 인사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경희 학우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모금 활동 참여자들에게 재차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금에 참여한 이재영(문화관광콘텐츠학 2018) 씨는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와중에 좋은 취지의 모금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듣고 바로 동참했다”며 “따뜻한 관심과 용기로 모금에 참여한 모든 학우 분들이 대단하고 같은 동문으로서 자랑스러우며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회복되길 바란다”

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 주도 모금 활동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도 진행됐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함께 진행한 ‘고려X연세 COVID-19 모금 운동’에선 총 930만 9,229원이 모였고 이는 대구 가톨릭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대신문/코로나 극복 위해 고대생 2,200만 원 모금, 2020.03.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려대학교 학우 기부금 조성 TF’에서 모인 2,242만 3,245원 중 2,100만 원 상당은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에 기탁됐고 남은 금액은 의료진에게 필요한 일회용품 구입 비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됐다(고대신문/코로나 극복 위해 고대생 2,200만 원 모금, 2020.03.15).